

공군의 아버지이며 영웅인 김정렬 장군을 추모하며

이문호 (예 준장, 공사17기, 본회 전 부회장)



공군은 지난해 창군 70주년을 맞이하여 2대 공군참모총장이었던 최용덕 장군을 공군 창군의 주역이라 평가하고, 그분의 공적을 기리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였다. 우연의 일치일지는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해사 졸업식 축사에서 “해군의 발자취가 국민 군대의 발자취입니다. 일본군 출신이 아닌, 온전히 우리 힘으로 3군 중 최초로 창군 했습니다”라고 언급한 이후, 공군은 중국군 출신인 최용덕 장군을 크게 부각한 반면, 공군이 그동안 아버지라 인식했던 초대, 3대 공군참모총장인 일본군 출신의 김정렬 장군은 가려졌다.

공군은 창군 70주년을 기념하여 최용덕 장군 동상을 공군사관학교와 교육사령부에 세우고, 최용덕 장군의 전기를 발간하는가 하면,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사 박물관을 새로 단장하는 등 공군의 창군 역사를 재평가하였다. 다양한 창군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최용덕 장군은 창군의 주역으로 칭송되었으나 김정렬 장군은 없었다. 김정렬, 최용덕 장군과 함께 공군을 창군했던 원로들과 함께 근무했던 전우들은 오늘날의 후배들이 현역과 예비역 간 충분한 공감대가 이뤄지기도 전에 서둘러 추진한 최용덕 장군 영웅화 작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까? 공군 창설의 주역이고 육군으로부터 공군 독립을 쟁취한 초대 김정렬 참모총장의 업적은 무슨 이유로 평가되지 못하고 가려지는지가 궁금하다.

필자는 공군이 김정렬 장군 서거 직후 동상 건립을 추진할 당시 공군참모총장 보좌관으로서 지켜봤고, 공사 제1기사관들이 김정렬 장군 동상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상 건립을 추진할 때에는 공군전우회 사무총장으로서 협조해 드렸기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다. 따라서 필자는 누가 진정한 공군의 아버지이고, 누가 공군의 창군 영웅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공군은 김정렬 장군이 돌아가신 직후 그분의 공적을 기리고자 초대 교장으로 계셨던 공군사관학교에 동상을 건립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동상을 제작하여 설치하기 직전에 공군사관학교에 재직하고 있던 일부 교수가 청와대에 “김정렬 장군과 부친이 일본군 출신이고, 공군 장병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였고, 김정렬 총장과 부친이 일본군 출신이고, 국방부 장관, 국무총리 등 고위직을 누렸다. 동상 건립을 중단하지 않으면 생도들과 함께 반대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다”는 내용으로 투서를 함으로써 중단되었다. 과연 김정렬 장군은 단순히 공군창군 7인 중 한 사람으로 평가절하 되어야 하고, 친일파이며, 고위직만 누렸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김정렬 장군은 건국 초기 항공시대를 예언하며 육군의 반대가 극심한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하여 1949년 20대의 경비행기와 1,600명의 적은 병력으로 육군항공대에서 독립하여 공군을 창군하였다.

우리 공군이 항공 우주군을 지향하면서 막강한 전력을 구비하고 명실 공히 전쟁역

제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시점에도 통합만이 전력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통합군의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서 적은 병력으로 미 공군보다도 더 빨리 독립을 이룩한 김정렬 장군의 열정과 능력을 새삼 인식하게 한다.

김정렬 장군은 회고록에서 “공군 창군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었다. 비행 시결과 기제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람이 확보되어야 항공부대를 만들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에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사람들을 찾아 내어 군이면 그 계급을 바탕으로 하고, 민간 항공 종사자들이면 그 경력을 참조하여 서열을 매겨가면서 500여 명에 달하는 인사들의 인적사항과 경력, 주소, 연락처 등을 정리하여 명부를 만들었다. 한편으로는 최용덕 장군, 이영무 씨, 장덕창 씨 등 지도급 인사들을 만나 앞으로 한국공군을 창설하는 데 일치단결하여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규합하고 서열을 매겨보니 최용덕 장군이 최고 서열이었고, 그 밑으로 이영무씨, 장덕창씨, 박법집씨, 나, 이근석씨 순이었다. 또한, 통위부와 교섭 요원으로서 내 동생 김영환을 집어넣었는데, 이들이 소위 공군 창설 간부 7인이었다”라고 기록했다. 이들은 서울 돈암동 김정렬 장군 자택에서 공군 창군을 계획하였다.

우리 공군은 현재 공군 창군과 독립을 주도한 7인을 부각하고, 공군 창군과 독립을 주도한 김정렬 장군은 단지, 공군창군 간부 7인으로 칭하고 있다. 제 5대 참모총장이었던 김창규 장군은 “일본 육사에 다닐 때 상급학년인 김정렬 장군이 하루는 불러 가보니 한국이 독립하면 공군을 창군해야 하는데, 조종하는 사람은 많은데, 기관사가 없다면 너는 기관사 특기를 받으라고 해서 기관사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분이 일본군에 근무 시 항상 공군의 창설을 염두에 두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김정렬 장군은 피 교육생으로서 사관학교에서 교육받던 중에도 오로지 공군 창군을 위해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였다.

김정렬 장군은 1949년 4월 육군 항공사관학교 교장으로 근무할 당시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경고하며 공군 독립의 필요성을 각계, 각층에 인식시키기 위하여 ‘항공의 경종’이라는 저서를 자비로 발간하여 요로에 배포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공군독립을 이룩할 수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의 남다른 신뢰를 받은 김정렬 장군이 초대 공군총장에 취임하였다. 김정렬 장군은 3년 재직 후 국군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참모총장은 2년 임기제로 하여 안정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고 후임자는 몇 달 전에 임명하여 취임하기 전에 복무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건의하면서 자신보다 연배가 높은 최용덕 장군을 추천하였다. 그는 상소문에서 “후임자는 현 공군본부 작전참모부장 겸 공군사관학교 교장인 최용덕 장군을 추천합니다. 최소장은 소관이 항상 존경하는 분이요. 지조가 굳은 혁명 투사로 20여년을 해외에서 전투하였으며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대 선배입니다”라고 건의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김정렬 장군을 공군사

관학교장에 임명한 후 최용덕 장군의 임기가 끝나자 3대 공군총장으로 다시 임명하였다.

공군 출신으로는 최초로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도 김정렬 장군의 능력을 지켜본 이승만 대통령의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김정렬 장군은 일본군 항공전대장 출신으로 전쟁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 전략전술가로 총장 재임 시 항상 미래의 공군발전을 내다보고 장기계획을 작성해 실천할 것을 참모들에게 강조하였다고 한다. 육군항공대가 적은 병력으로 운영되던 당시 사관학교를 창설하여 인재를 양성한 것도, 공군대학을 창설하여 운영한 것도 미래를 내다본 혜안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미군의 원조를 받아 대방동에 공군 본부와 공군사관학교를 마련한 것도 김정렬 장군이였다. 전역 후에도 김정렬 장군은 공군 최초의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이후에도 주미대사, 민주공화당 초대 의장, 반공연맹 이사장, 삼성물산 사장, 정우개발 회장을 거쳐 민주화 과정의 과도기에 국무총리로 임명되어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부자가 한국전에 참여한 사람은 김정렬 장군을 비롯한 신태영, 유재흥 등과 일곱 사람이라고 전쟁박물관에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김정렬 장군은 실질적으로 공군을 창설하고 육군에서 공군을 독립시킨 장본인이며 2대에 걸쳐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하면서 공군발전의 기틀을 구축한 진정한 공군의 아버지다. 더욱이 그는 군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한 영웅이다.

그러나 우리 공군은 김정렬 장군의 동상 건립이 무산된 후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파로 씌운 굴레를 두려워해서일까 공군독립과 창설의 주역이었던 김정렬 장군은 체제두고 최용덕 장군이 느닷없이 공군의 아버지라고 역사를 재평가 하였다.

이는 육군과 너무나도 대조된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백선엽 장군의 친일행적을 인정하여 친일명부에 등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육군은 변함없이 6·25전쟁 당시 그의 전공을 내세우며 전쟁 영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존경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 크다.

공군사관학교 제1기 사관들은 생도 시절 교장으로 모셨고 임관 후 평생 전우로, 또는 상관으로 모셨던 김정렬 장군 동상이 무산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윤자중 전 공군참모총장을 위원장으로, 김영환 장군을 부위원장, 최규순 장군을 간사로 하여 김정렬 장군 동상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간사인 최규순 장군은 보라매지에 기고한 글에서 “...김정렬 장군은 우리나라 항공대 창설에서부터 공군 독립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순간에도 공군발전에 대한 열정을 멈춘 적이 없었고, 어느 한부분도 장군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해군의 영웅이었다면 서암 김정렬 장군은 누가 봐도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공군의 영웅이다. ... 중략 ... 우리도 해군의 손원일 제독에 못지않게 군과 국가발전에 많은 이바지를 한 우리 공군의 아버지인 김정렬 장군의 공적을 공군 장병과 국민에게 바로 알려서 우리 공군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계를 리하면 안 될 것이다.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공군 창군 6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공군사관학

교 제1기생 일동은 우리 공군의 영원한 영웅 서암 김정렬 장군과 그 업적에 대하여 후배로서 과연 소홀함이 없는지 마음속 깊이 반성해 보자는 데에 모두 뜻을 같이하기로 하였다. 서암 김정렬 장군의 빛나는 업적은 너무도 큰 것이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대치할 수 없는 것이지만, 수년 전에 김정렬 장군 동상 건립 추진계획이 진행될 때에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하였는데 동상 제작이 완료될 시점에 김정렬 장군이 일본육사를 나와 일본 장교로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익명의 투서에 의해 중단되고 지금은 제작 중 중단되었던 흉상만이 공사박물관에 안치되어 있다. 참으로 공군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분의 공군 발전에 대한 크나큰 업적은 도외시된 채 일본육사를 나와 장교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공군을 독립시키고 발전시킨 면은 왜 인정하지 않고 깎아내리는지 참으로 유감스럽다. 공군의 아버지이고 영웅이셨던 그분은 그 이후 공군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리고 어떠한 영웅도 배출하지 못한 군이 되었다.

일본인들은 자기네의 조상을 모조리 수장시킨 ‘조선의 이순신 장군’을 전쟁의 신으로 모시면서 러일전쟁 때 세계최강의 러시아 발트 함대를 맞이하던 날 새벽에 일본 해군 전 함대의 함상에서 전쟁의 신 이순신 장군에게 일제히 고사를 지냈다는 기록도 우리를 놀라게 하지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 해군의 도고 제독에게 미국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이라는 질문에 ‘조선의 이순신 장군이다’라는 대답이 서슴없이 나왔다는 기록 역시 우리를 놀라게 한다.

진정한 영웅, 진정한 강자에게 ‘강해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일본인들의 열정은 이순신 장군이 자기들의 조상을 완전히 수장시킨 사람마저도 잊게 만드는 그 정신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세계사를 뒤돌아보면 어느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없는 영웅도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존경받아야 할 참 영웅마저도 우리는 익명의 투서 하나로 중단하고 말았다.

특별법으로 설치한 대통령소속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5년간에 걸쳐 완성한 1,005명의 친일파 명단에는 박정희 대통령도 김정렬 장군도 들어 있지 않았다. 군인의 경우 ‘소위 이상 장교로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자’는 친일파로 규정하였다고 한다. 좌파성향의 위원들로 구성되었다 하여 말도 많았던 위원회에서 그분의 업적을 정당하게 평가하였으니 참으로 공군인의 한 사람으로 다행한 일이다.

이제 우리 공군과 우리 공군인이 해야 할 일이 분명하다. 오래전에 공군사관학교 제1기생회에서는 김정렬 장군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윤자중 동기생을 위원장으로, 김영환 동기생 부위원장으로, 본인이 간사가 되어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물론 공군과 예비역단체인 전우회, 공사총동창회, 학사 장교회 등 모든 공군인이 한뜻으로 우리 공군의 영웅이자 아버지인 김정렬 장군의 동상을 원래 계획대로 사관학교에 설치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공군의 위상을 높িয়ে 되길 기대한다. 공군을 독립시키고 공군발전의 초석을 다진 김정렬 장군을 바르게 모시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어느 국민이 공군을 신뢰하겠는가? 훌륭한 업적을 이룩한 선배들을 영웅화하는 것이 바로 우리 후배들이 자랑스럽게 조

국의 영광을 지킬 수 있게 하는 힘이며, 국민들이 우리 공군을 신뢰하는 길이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1기 사관 출신들이 추진한 김정열 총장 동상건립추진위원회는 2010년 9월 예비역단체인 공군전우회, 공사총동창회, 학사 장교회, 유공자회, 전상공회 대표와 제 11대 참모총장이었던 김두만 총장, 윤응열 장군 등 원로들을 초청하여 공군전우회를 중심으로 전 예비역단체가 함께 동상 건립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당시 공군전우회장인 23대 참모총장 김홍래 장군은 "새로운 동상 건립은 현역을 비롯한 전 공군인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니 우선, 공사 박물관에 보관된 반신상을 공군과 협조하여 공군본부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2011년 4월 22일 김정열 장군의 반신상은 일차적으로 공군본부 대회의실 앞에 안치할 수 있었다. 우리 공군은 70년의 역사 속에 정치 권력에 흔들림 없이 오직 군 본연의 임무인 조국의 영광을 빈틈없이 지켜왔다. 이것이 공군사관학교가 가사처럼 하늘에 살면서 하늘에 목숨 바친다는 빨간 마후라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공군을 창군하고 독립을 이

룩한 김정열 장군을 정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친일파 아니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파라고 지정하였다고 하여 공군 스스로 이분이 이룩한 업적을 평가하지 않는다면 우리 공군의 장래는 밝지 않을 것이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기 때문에 정확히 기록하고 바르게 평가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역사 왜곡이 우리 군에서도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분이 이룩한 민주화와 산업화에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 공군이 스스로 평가 저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용덕 장군이 공군사관학교 교장으로서는 이룩한 업적을 평가한 것과 같이 공군사관학교와 공군을 창설하고, 2대에 걸쳐 공군을 발전시킨 김정열 장군의 업적도 바르고 평가하고 기렸으면 하는 소망이다. 이제라도 김정열 장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공군의 진정한 아버지로 자리매김 되길 기대한다

김정열 장군은 누가 무엇이라 해도 그분은 공군의 아버지이고 공군의 영웅이다. //

느껴야만 하는 섬뜩한 실체다.

안타까운 것은 일부 전교조 교사들의 경우 몇 해 전 까지 6.25전쟁을 조국 해방전쟁으로 묘사한 자료집을 읽고, 학생들에게 왜곡된 교육을 가르쳤다는 것이다.

이처럼 6.25에 대한 우리 청소년들의 무지와 무관심은 이런 지각없는 현 정부, 정치인, 언론사, 일부 사회시민단체들의 합작품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여전히 햇볕정책을 운운하며 과거 정부를 질타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지난 10년간 햇볕 정책으로 변한 건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다.

남한 사회가 민족, 동포, 평화 통일이라는 감성에 폭 빠져 북한에 대한 최소한의 경계심마저 허무는 동안 북한은 오히려 핵 실험을 강행하는 등 안보 불안을 극대화시켰다.

이와 함께 남북 간에 큰 긴장 없이 평화 가 유지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군(軍)마저 기강이 해이해지고 나타해졌다. '평화'는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다.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럼에도 문 정권은 전방부대를 철수하고, 방호벽을 허물고, 군 복무기간도 단축했다. '주적개념'도 없어졌다. 이제는 종전(終戰)까지 거론한다.

아직도 여당과, 안보문제를 정치적 이해에 관련시켜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는 실로 천부당만부당한 일로 이해할 수 없다. 온갖 간난(艱難)으로 자신과 집안이 풍비(風靡)박산이 되면서도 나라를 지켜온 호국영령들에게 더 이상 망령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사실 여당, 진보세력은 이제껏 별다른 정책 없이 반정부 투쟁만 일삼아왔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안보의 백년대계는 안중에도 없는 듯 비취졌다.

안타깝게도 독재와 빈곤의 아픔과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우리가 정말 이런 나라를 올바르게 지켜낼 수 있을까. 모두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희생은 싫고 쉬운 애국만 말하려 한다면 이 나라를 위해 누가 싸울 것이며, 목숨을 버리겠는가. 진정한 애국은 공동체를 위해 맡겨진 의무를 수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보훈의 달에 최근 북한의 만행을 지켜보며 우려감이 드는 것은 필자만의 마음일까. 북한의 김여정이 문 대통령을 향해 '배신자' 운운하며, 모욕적인 망 말을 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재산인 판문점 남북연락 사무소가 폭파되어도, 여전히 '인내로서 지켜보겠다'는 문 대통령, 북한의 폭언과 만행에 대해 '참고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대북 전단 살포를 못 막은 게 아

쉽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동의했지만 밀(실무진)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다(?)"는 언급이 고개를 가웃 거리게 한다.

비핵화 약속을 깨고 어렵사리 성사된 남북 간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국민 세금 200여억 원이 들어간 사무소를 폭파해 평화를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북한이 아닌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시설 폭파, 서해안이나 휴전선 도발 등이 예상되는데도, 이렇게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핵 위협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높은데도, 문 대통령과 종북 세력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지 자못 궁급하다.

여전히 전쟁은 안 된다고 외치며, 항복하자고 하지는 않을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호기(好期)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미군 철수를 외쳐대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최근 정부의 대북 굴종은 탈북자 단체의 전단 문제로 다시 불거졌다. 김여정의 고압적인 말 한마디에, 놀란 우리 정부와 집권 세력은 기다렸다는 듯이 관련 탈북단체에 대해 제재조치를 발 빠르게 했다.

이처럼 북한이 보낸 경고에는 즉각 수용하면서 우리가 응당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니 북한이 우리를 앞잡아 보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개인의 품격이 인격(人格)이라면 국가의 품격은 국격(國格)이다.

'국격' 유지는 표현 또는 행동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북한의 무례(無禮)에 대해 우리는 당당함을 잃지 말아야 하고, 굴복하지도 말아야 한다.

북한의 무례에 굴복하는 순간, 대남통일 전술에 말려들어 사안을 그릇 치며, 나라를 적화시킬 소지가 크다.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은 다 미국이 잘못된 탓이다"라고 미국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전직 장관 출신이자 평통자문위원회 수석부회장의 말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다.

국회의원 절반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국정원 등에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상당수다. 이런 모습에서 어느 나라 정부인지, 집권세력인지, 문 정권은 무조건 인내하며 북한을 두둔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군'의 방위태세를 빈틈없이 점검하고, 느슨해진 한·미 동맹을 신속하게 재건해야 할 때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 협상 복귀만이 모든 문제의 해법"임을 상기시켜야 한다.

현 정권의 행태를 보면 이 나라의 앞날이 캄캄하기만 하고 미래가 보이지를 않는다. 제 1야당도 믿을 수 없다. 변화는 오직 국민에게 달려있다. '방임'은 '공범'이 될 수도 있다. 호국영령들의 죽음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

“북한의 만행에도 굴종의 선택을 할 것인가? 냉정한 대응이 절실하다”

안호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칼럼니스트, 방송인)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특별히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하다.

올해도 예외 없이 공군 전우들과 함께 '동작동 현충원'을 방문, 호국 영령들에게 헌화하며 명복을 빌었다. 무명용사 탐에도 들었다.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예상한 대로 여전히 한산했다. 광주사태 때 사망자나 세월호 사망자 추모식에서는 쉽게 볼 수 있었던 인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똑같은 죽음이지만 가치기준이 다르다. 차별은 할 수 없지만, 차이는 있다는 것이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 할 6.25 전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6.25 전쟁의 아픔이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져가고 있다는 게 슬프기만 하다. 오래 전에는 보훈의 달인 6월이 되면 '근조기'를 가슴에 달았고, 또 거리에는 호국 영령들의 명복을 비는 프랭카드가 한 달 내내 걸렸었다.

특히 6월6일 현충일에는 가무(歌舞)도 금지해 유일하게 유흥가가 쉬는 날이기도 했다.

그러나 언제인가부터는 정권이 바뀌면서 5.18 광주사태나 세월호보다 더 못한 보훈의 달로 전락해버렸다. 사회학자 레몽 아롱의 '남침 설'을 부인하다, 북한의 남침이 역사적 사실로 드러나자 북한이 남침을 하도록 미국이 함정을 팠다며 '새로운 미래를 위한 진보적 폭력'이라는 억지 논리를 펼쳤던 프랑수아 '사르트르'를 닮은 부류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객관성, 보편성과 소통하지 못하는 주관은 억지요, 아집일 뿐이다. 이름개나 있는 지식인이나 내로라하는 정치가, 이론가들이 '사르트르의 도그마'의 허상(虛想)에 눈

이 멀어 얼토당토않은 억지를 부리는 모습은 늘 깨어있는 우리 가슴을 놀라게 하고 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전쟁이나 평화나' 하는 구호를 내걸으며 운 좋게도 선거판을 뒤바꿔놓았다. 문제는 좋은 전쟁도 없고 나쁜 평화도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집권 여당이 '천안함 피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만행을 인정치 않고, 북침을 주장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민족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일부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해 '전쟁이나 평화나'의 자극적 선동에 휘말려 '자유나 굴종이나'의 엄숙한 고민을 회피한다면, 그리고 북한의 불바다, 전면 전, 무자비한 타격 따위의 심리전에 기죽어 '자유'의 가치를 포기하고 그저 당장에 일신(一身)이 편안한 '굴종의 현실'을 택한다면 과연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는가. 단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6.25를 모르는 전후세대인 젊은이들의 심리를 부추기며, 억이용한 집권여당, 6.15 기념식을 한다면서 과거 정부를 비난하고,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해전에 대해서는 북한에 단 한마디 반성도 촉구하지 않는 정치권과 시민단체들, 하나가 되어도 부족한 시점에서 유엔에 항의서한을 보내는 이적 단체, 불법으로 북한에 가서 이적 행위를 하는 종교인, 남쪽의 군사독재에 이를 갈며 저항했던 지식인, 종교인들이 북쪽의 인권마저 없는 선군 독재에는 어찌 그리 턱없이 유연한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처럼 "칼을 녹여 쟁기를,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의 날"을 더 없이 소망하지만 동족의 젊은이 46명의 고귀한 생명을 여리로 몰살시키는 '선군'(!?)이 북에 버티고 있는 한 불행하지만, 아직은 칼을 갈고 창날을 세우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우리 민족끼리

장마

김완용 (예 준위, 준사관 58기, 한국공무원문학협회장)



비가 종일 그칠 줄 모르고 내리는 장마철이면 윤희길 선배님의 소설 『장마』가 떠오른다. 대학에서 문학공부에 열중이었던 때에는 그 소설의 분석을 열심히 하기도 하였다. 선배님의 소설 『장마』의 시대적 배경은 봄부터 자란 완두콩을 거둬들이는 여름의

시작인 6월 말경이다. 이 소설은 장마와 전쟁을 등가적으로 얽어놓은 것이다. 장마도 결국 하늘이 일으킨 전쟁이고, 그 저주 때문에 인간이 극심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소년(동만)의 내적 성숙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시종일관 장맛비와 전쟁의 소요를 병렬적으로 배치하고 장마와 전쟁을 각각 천재적 재앙과 인위적 재앙으로 강조하였으며, 첨예한 이념문제도 민족의 원형질을 찾아 이성이 아

닌 감성에 호소할 때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 작품에서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결과론적으로 이념적 갈등의 벽을 허물지 못하는 우리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는 남북간의 화해 모드를 암시한다.

소설 『장마』는 6·25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세대들에게는 모두 공감대가 가는 명작 소설이었다.

그런데 내게는 매년 여름장마가 시작되면 윤희길 선배의 소설 『장마』외에도 머릿속을 맴도는 걱정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

1970년대 초 나는 고향 사람들의 꿈인 화려한 서울에서 살아보는 기회를 얻었다.

남도천리 고향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울은 네온사인 불빛이 화려한 환상의 세계가 아니던가. 나는 그러한 서울에 올더스 헉슬리의 유토피아(Utopia)소설 같은 『멋진 신세계』를 꿈꾸며 서울에 입성하는데 성공하였다.

내가 군대생활 첫 근무지로 배속을 받은 곳이 서울이었으니까 가장 이상적인 희망과 꿈에 젖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에 신대방동은 서울변두리 개발지역으로 봄과 여름에는 군화밭이 문힐 정도로 황토 진흙이 올라왔고, 돼지우리의 지독한 분변냄새가 진동하는 신도림천 개울 건너 신림동 땅들은 건물 하나 없는 황토밭의 형틀로 남겨진 시골이었다.

부대 앞길은 국도 1호선이 구로공단을 향해 놓여 있었으나, 부대 뒷길은 관악산이 서울의 끝자락을 막아놓은 탓인지 도저히 개발이 되질 않을 것 같은 곳이었다. 도심의 개발에 밀려들어온 사람들이 신림동 산동네에 옹기종기 움막집들을 짓고 살았으며, 시내버스 노선도 1동에서 지금 서울대학교가 들어선 2동까지 겨우 연장되어 운행하던 때였으므로 시내와 연결되는 교통은 말할 수 없이 불편하였다.

서울에 입성한 나는 밤이면 자주 노선버스가 일찍 끊기는 신림2동 산동네 밑의 술집에 막걸리를 마시러 다녔다. 술도 술이지만, 그곳 동사무소에는 초등학교 친구 한명이 복지과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 친구와는 다른 급우들이 질투할 정도로 친한 친구였으며, 성적도 반에서 1·2등을 서로 다투어 할 정도였다. 그는 고향에서 부자집 도련님으로 자랐으나 부친의 사업실패로 가세가 기울어 결국 고등학교도 야간을 겨우 나와 서울시 공무원시험에 당당하게 7등으로 합격하여 10등 이내의 합격자에게 주어지는 근무지 선택권을 얻었다.

그런데 서울의 오지인 신림동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었다. 그 친구는 본래 아버지의 둘째 부인에게서 태어났으나 어머니가 일찍 첫째부인(큰어머니)에게 자신을 맡기고 집을 나왔단다. 그래서 그는 조부모 밑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는데, 성장하여 생모가 신

림동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개발지역인 신림동으로 지원을 했다고 했다.

토요일 외출이 되면 타관에서 갈 곳 없는 나는 언제나 친구를 찾아갔다. 토요일이라 해도 그의 근무시간은 오후 5시 경이 되어야 끝났다.

그날도 6월 장마가 시작되던 주말이었다. 친구와 통행금지시간을 넘기도록 술을 마신 우리는 일요일 아침이 되자 딱히 갈 곳도 없었다. 그런데 친구가 제안을 해왔다. 종로에 아버지가 계신데 같이 가보자는 것이었다. 사실 어릴 적 내가 본 친구의 아버지는 항상 술에 취해 있었고, 친구의 집에 놀러가도 별로 대화를 하지 않던 그러한 아버지였다. 그런데 언제 서울로 옮기셨는지 그것도 종로에 살고 계신다고 했다. 친구를 서울에서 만난 지 1년이 다 되어가도 친구는 가족의 근황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종로 종묘 앞 봉익동에 살고 있다는 말에 나는 잔뜩 호기심이 났다. 서울의 중심은 종로가 아니던가.

그 서울의 중심에 친구의 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설레기 시작했다. 서울의 남쪽 변두리에서 중심가인 종로로 가기까지는 버스를 두 번씩 갈아타야 했다.

천재의 장마는 잿빛 하늘을 종일 무너뜨리며 비를 쏟아내었다. 역대 왕들의 신위가 모셔져 있다는 종묘 정문 앞 좌측으로 난 골목길을 들어서자 그곳은 서울이 아니었다. 난민들이 모여 사는 난민촌과도 같았다. 흑기와 지붕을 반쯤 덮고 있는 군용텐트는 6·25 휴전 후 미군들이 버리고 간 듯 했고, 그것도 없는 지붕들은 색색의 종이 박스나 비닐로 빗물이 썩 지붕을 덮고 있었다. 친구의 아버지는 그곳에 중병환자가 되어 누워 계셨다.

공무원인 친구에게 왜 서울의 중심지를 이대로 방치했을까? 하고 물었더니 친구의 답변은 황당했다. 나라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보존지역으로 개축 및 증축은 물론 기왕장 하나라도 훼손하면 안 된다고 했다.

사람이 살아야 할 동지, 삶의 질을 충족시키면서 지내야 할 집이 빗물이 새고, 넘어질 듯 위태로운 데도 쳐다보고만 있어야 할 문화재 보존지역이 종로의 봉익동 말고도 전국 곳곳에는 너무 많다. 한옥마을, 국립공원...등등 유구한 민족의 역사만을 고집하며 선진화 사회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탁상행정들이 아쉬웠다.

50년이 지난 오늘의 봉익동 모습은 어떤까? 오래전에 서울을 떠났지만 장마가 시작되는 날이면 궁금해진다.

6월 장마가 시작될 때마다 가슴 아프게 하는 것들, 이념의 갈등으로 형제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던 동족상잔의 아픔과, 문화재 보호라는 허물을 덮어씌우고 빗물에 젖던 봉익동 사람들의 고통이 머릿속을 맴돈다.//

니다”라고 어머니께 손 편지를 썼다. 한편 어머니는 혼자 몸으로 유학간 아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가진 것도 없었지만 조금씩 늘어난 빛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매일 아침 새벽부터 땅거미가 질 때까지 동네 뒷산부터 먼 산까지 산이란 산은 모두 살살이 누비며 솔방울을 굵어모았다. 불쏘시개로 화력이 좋은 솔방울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거금 400원(1930년 당시에 쌀 한가마니는 13원임)을 마련해서 아들에게 보냈다. 이 흥렬은 생각을 바꾸어 이 돈으로 피아노를 사서 음악공부에 매진했다.

이렇게 음악 공부를 정진해서 ‘이흥렬’이 처음 작곡한 노래가 탄생했다. 바로 양 주동 박사(시인)의 명시(名詩) ‘어머니의 마음’이다.

한국인이라면 이 노래의 1절 가사를 다들 잘 안다. 그러나 2절, 3절 노랫말은 생소해 한다. 해마다 5월이면 어버이날(5월 8일)을 맞아 우리들이 부르는 명곡이다. 이 흥렬 작곡가는 광복 후에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장으로 일했다. 「이흥렬 가곡집」에는 <고향생각>, <봄이 오면>, <바우고개/1934년>, <자장가>, <꽃구름 속에>, <코스모스를 노래함> 등 주옥같은 400여 명곡(名曲)을 담았다. 양 주동 박사는 신라시대 설총(薛聰)이 만든 이두(吏讀)를 연구해서

신라 향가(鄕歌)를 맨 처음 완벽하게 해석한 천재(天才) 문인이다.

그가 내 학창시절에 남산 아래 Y고교 운동장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문학 특강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다음 시간에 한문을 가르치는 R 선생이 “양주동 박사가 하도 말을 잘해서 ‘주동이 박사’라는 별명을 지어주고 싶다”고 한 게 생생하게 기억난다.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자리 같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오, 어머니의 희생은 가이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열려 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앓을 사 그릇될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오, 어머니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오. 어머니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어머니의 마음 악보2020년 어버이날을 맞아 하늘나라의 어머니를 그리며 양 주동 작사, 이 흥렬 작곡의 <어머니의 마음>을 소리죽여 흐느끼며 불러본다. 불쏘시개용 솔방울에서 나온 한국인의 영가(靈歌)인 <어머니의 마음>을!!

울리지 않는 종

강상률 (예 준위, 전문경영자회장)

허공을 감돌아
포성이 멈추었으나
역사의 늪 속에 매달린
울리지 않는 종이 있다

어둠 사르고
평화의 기슭을 찾아
목메인 절규로 울었던
가슴에 남은 저 자유의 종소리

아! 지구촌 어느 하늘아래
이 보다 더 슬픈 종이 있을까?
울고 싶을 때 울리지 못하는 울림을

서로 손을 맞잡아 가면서도
그는 누구이며 너는 누구인지 지켜보며
임진강 하구쪽으로 밀려가는 강물처럼
69년간 돌이킬 수 없는 침묵으로 잠 들었나

아직도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찢겨진 깃발 만큼도 자유롭지 못한
슬픔의 땅에 울리지 않는 종을 보듬고
혹서 속에서 한 송이 꽃을 어루만져 본다. //



※ 본지에 기고된 글들은 본회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솔방울 어머니의 마음

전대길 (병 176기, (주)동양EMS 대표이사, 국제PEN 한국본부 이사)



한다.

어린이날, 아버이 날, 스승의 날이 있는 5월을 맞아 일제 강점기에 함경남도 원산 출신의 이 흥렬(李興烈)이란 청년의 어머니를 생각

음악 재능이 탁월한 이 흥렬은 일본 동양 음악학교 피아노학과로 유학을 떠났다. 그러나 그는 피아노가 없이는 음악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으니 음악공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음악에는 피아노가 필수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소자(小子)는 음악공부를 이만 접고 귀국하렵